

B09

유소아의 기도이물에 대한 임상적 고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오춘석^{*} · 송달원 · 손영탁 · 최용식 · 김중강

저자들은 1985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중 기도이물을 의심하여 환기형 기관지경술을 시행한 54례의 유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고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기도이물을 의심한 환자 54례중 4세 이하가 49례(90.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녀의 비는 3.5:1 이었다.
- 2) 이물개재 시간별 분포는 7일에서 30일이내가 13례(2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일에서 3일이내로 12례(22.2%)였다.
- 3) 기도이물의 증상으로는 기침(85.1%), 호흡곤란(38.9%), 고열(31.5%) 등의 순이었다.
- 4) 기도이물의 종류로는 식물성이 23례(67.6%)로 가장 많았고, 이중 땅콩이 19례였으며, 금속류, 플라스틱류 순이었다.
- 5) 이물이 있었던 34례중 흉부단순 X-선 소견상 이상소견을 나타낸 경우는 32례(94.1%)였으며, 이중 폐기종이 가장많은 빈도를 보였고, 식물성이물은 전례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
- 6) 기도이물을 의심한 환자 54례중 이물이 없었던 20(37.0%)례 모두 흉부단순 X-선 소견상 이상소견을 나타내었고 이중 폐렴이 10례(50%)로 가장 많았고 무기폐, 폐기종의 순이었다.
- 7) 이물의 개재부위는 주기관지 26례(우:14, 좌:12), 기관 6례, 성문 2례의 순이었다.

B10

후두및 기관협착증의 유발인자로서의 위산및 펩신의 역할에 대한 실험적연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 교실

조재식, 김판수, 조 원, 이종원

후두및 기관지 협착증은 대개가 기도확보를 목적으로 후두및 기관내에 삽관을 시행하였을때 삽관튜브에 부착된 cuff내에 압력이 높게 되면 점막에 혈류장애가 초래되고 궤양등의 점막손상이 뒤따르며 여기에 2차감염이 초래되어 육아종과 반흔이 생기면서 결국은 협착이 초래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손상된 후두및 기관의 점막에 산도가 강하고 소화효소가 함유된 위액이 역류되어 접촉될 경우 협착이 더욱 조장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액이 과연 후두및 기관지 협착증에 관여 할 것인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동물은 가토를 대상으로 하여 Urethan마취를 시행하고,삽관한 다음 합성위액pH 1.5, 3, 5 짜리 용액을 기관내에 1시간정도 관류시킨 다음 후두및 기관을 적출하여 점막상태의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산도가 강하고 펩신이 첨가된 합성위액으로 관류한 군에서는 섬모의 파괴점막의 궤양, 부종과 염증소견등이 심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산도가 약할 수록,그리고 펩신이 첨가되지 않은 합성위액으로 관류한 군에서는 섬모 및 점막의 손상이나 염증 및 부종등의 소견이 경미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강한 산도의 위액이 후두 및 기관으로 역류될 경우 협착증의 발생에 깊이 관여하리라고 추측되었다.